

비좁은 단칸방 구석에서 만난 자화상

세계일보

정지혜 기자



2021
기자의 세상보기



점점 더 좁은 집에 살아야 하는 청년
(제공=세계일보)

“대학가에선 여학생들이 사는 집에 이웃 남성이 들어와 속옷을 훔쳐가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무리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그 집에서 계속 살기엔 찝찝하다고 들 해요. 그런 일이 있었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늘 불안감이 들고요. 더 비싸고 좋은 방을 찾거나 그게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며 마음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갓 20대가 된 대학생 A씨는 약 2년 동안 이사를 5번이나 해야 했다. 지나치게 좁은 고시원의 방, 사생활 침해와 보안 문

제로 불안했던 원룸, 월세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오피스텔, 외부인 남성의 침입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하숙까지. 청년 여성 1인가구인 A씨 앞에 놓인 녹록치 않은 현실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엔 너무 많은 불안한 밤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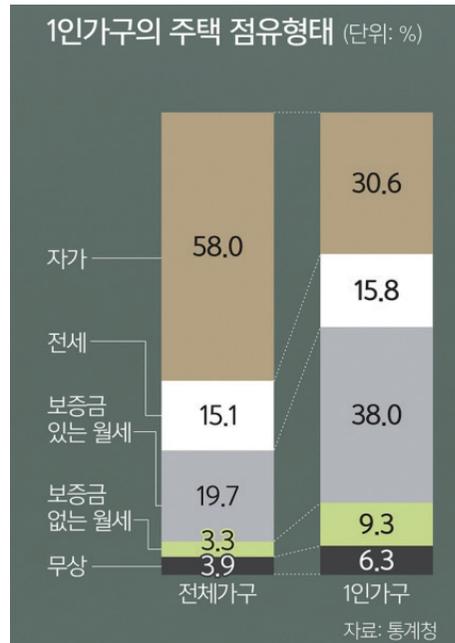
그는 추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라 했다. 부모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력이 취약한 청년일수록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는 뜻이다. 취향이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닌 ‘생존권’을 놓고 살

곳을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 이제 막 독립한 이에게 가혹한 선택지가 아닐 수 없다.

A씨의 대학 선배인 20대 중반의 B씨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보안이 잘 된 신축 오피스텔은 그림의 떡입니다. 저는 일명 ‘공유형 자취방’에 사는데, 집 하나를 두 개의 문으로 쪼갠 형태예요. 방음도 안 되고 사생활 침해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도와줄 수 있으니 안전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웃픈(웃기지만 웬지 슬픈) 일이지요.”

최근 ‘쪼개고 쪼갠 원룸...잠만 자는 방’에 내몰린 2030 세대 기획취재를 위해 20~30대 1인가구로 살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30대에 한창 접어든 시점에 마주한 20대 후반들의 팍팍한 생활상에 문득 낮익은 생경함을 느꼈다. 한동안 안 잊고 살았지만 나 역시 ‘이 정도면 꽤 괜찮다’는 방에 살게 되기까지 족히 10년 이상이 걸렸다. ‘제발 벌레가 나오지 않는 방에 살아봤으면’ 하고 바랐던 것이 불과 5-6년 전 일이다.

대학 시절 평일 오전엔 수업을 몰아듣고 오후엔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주말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그래도 월세를 40만원 넘게 지출하



1인가구 주택점유 형태(통계청, 2022년 자료)

긴 부담스러웠다.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은 고만고만했다. 이곳저곳 전전하며 본의 아니게 데이터가 쌓였다. 습기, 어둠, 벌레와의 전쟁으로 학을 떼게 된 ‘반지하 방’은 물론이고, 벽을 타고 벌레가 침투하기 좋은 소위 ‘빨간 벽 돌집’도 피해야 할 집으로 각인됐다. 하지만 다 알면서도 답이 없어 그 현실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인 것만 문제가 아니었다. 골목길에 위치한 자취방으로 밤 11시쯤 귀가하다 봉변을 당할 뻔한 일도 있었다. 만취해 두 눈이 풀린 내 포래의 남성이 앞을 턱 가로막고 섰을 때 문자 그대로 온



5평 원룸·2년간 5번 이사... 청년 1인 가구 주거난민 전략

정치권 선거철만 관심·현실 개선 안돼

정지혜·안승진 기자 wisdom@segye.com

#1.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희진(가명)씨는 지난 2년 동안 5번 이사를 했다. 고시원에서 오피스텔, 원룸, 셰어하우스, 하숙을 전전했다. 그가 거의 5개월마다 한 번씩 집을 옮겨 다녀야 했던 이유는 월세 외에도 안전 때문이었다. 김씨는 “고시원에서는 지나치게 좁은 방과 보안 문제가 걸렸고 원룸에서는 사생활 침해, 택배상자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될까 걱정됐다”며 “누군가와 같이 살면 덜 무섭기도 하고, 같은 월세로 훨씬 좋은 상태의 집에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공동생활에 정착했다”고 말했다.

#2. 대학 시절부터 10년간 자취생활을 했던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해마다 주거환경이 악화하는 게 놀랍다. 이씨는 “월세 부담 때문에 반지하부터 옥탑방, 친구와 단칸방을 나눠쓰는 경험까지 모두 해봤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새로 생기는 신축 원룸을 보면 임대료는 비슷한데 방 면적이 예전에 비해 훨씬 좁다”며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데 딱히 무엇이 나아졌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과 산업계가 20~30대 1인가구를 주목하고 있다. 막 성인이 되어 독립을 시작한 20대와 경제력을 갖기 시작한 30대는 정치권엔 놓칠 수 없는 ‘부동층 표밭’이고 기업들엔 최근 들어 보편화한 1인가구 소비시장의 주력 고객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에 비해 청년 1인가구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주거비용과 줄어드는 1인당 거주면적, 안전에 대한 위협 등은 청년들 삶의 질은 물론 생존권과 직결된 경우가 많다.

▶ 4면에 계속

세계일보 신문 지면
(2021년 5월6일자 1면)

몸이 얼어붙었다. 마침 그의 친구가 나타나 말렸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20대 초반 여성이었던 내가 할 수 있는 대처가 무엇이 있었을까. 단 한 번의 그 기억이 미친 영향은 컸다. 이후로는 아무리 차 소음과 공해가 있더라도 대로변, 지하철역 앞의 집을 고른다. 10만원 가까이 관리비를 내더라도 경비원이 있는 건물에 입주한다. 심지어 이것은 나 혼자만의 경험도 아니었다. 지난해 ‘운동하는 여자들’ 기획취재를 위해 참여했던 여성 호신술 수업에서 수십 명의 참가자 모두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털어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문명과 기술의 고도화, 사회 전반의 발전사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점점 더 좁은 집, 불안한 거주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거 난민 신세가 되는 걸까. 1인가구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정치권과 산업계는 이들에게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고 있지만, 정작 혼자 사는 청년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아이러니. 무언가 확실히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력적인 부동산 표밭이자 새롭게 떠오른 부동산 고객층으로서 청년 1인가구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최근 들어 이들의 구애 전쟁은 낮 뜨거울 정도다. 그러나 선거철이면 전통시장을 찾아 어묵을 먹는 정치인들의 ‘연출된 친 서민 행보’ 처럼 이들의 청년 사랑 역시 다소 공허해 보인다. 정부가 그 동안 가동한 1인가구 관련 TF나 정책만 한 가득이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어쩌면 청년 1인가구는 정치권과 산업계에게 철저한 이해관계로만 존재하고, 진짜 이해는 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니 아득해졌다.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이를 뒷받침했다. 진짜 청

년의 목소리와 요구는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었다. 누군가는 “청년을 계속 아쉬운 상태로 두어야 그것을 해결해달라며 정치권에 지지를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통찰을 내놨다. 1970~80년대에 굳어진 ‘방 3개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관성을 깨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에만 맡겨놓은 동안 건설업계가 내놓는 1인 가구용 상품은 양극화됐다. 월세 100만 원을 훌쩍 넘는 프리미엄 형태이거나 조금 거친 표현으로 ‘닭장’ 수준인 5평 이하 보급형 원룸이거나, 보급형이라지만 이마저도 신축 원룸일 경우 서울 기준으로 월세 50만~60만원을 웃돈다. “집값 폭등으로 가만히 있어도 ‘벼락저지’가 되는 느낌이 들어 힘든데, 현실은 수십만 원의 월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니 박탈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2030 젊은이들의 말은 또래인 내게도 비수처럼 꽂혔다.

“신축 원룸, 투룸이라고 짓는 현장을 가보면 옷장 하나 넣기 힘든 말도 안 되는 컨디션이 난무합니다. 소비자가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해 1인가구를 위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 상품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유현준 홍익대 교수(건축학)의 지적이다. 바꿔 말하면 청년들이 더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한 지금의 현실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일까. 다시 한 번 세상이 참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쪼개고 쪼갬 원룸... ‘잠만 자는 방’에 내몰린 2030세대



세계일보 신문 지면(2021년 5월8일자 4면)

청년 1인가구의 주거난민 문제는 여러 의미에서 이들의 자립을 가로막는 측면도 있다. 해외에서는 성인이 됨과 동시에 자녀가 독립하는 것이 비교적 일상적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타지에서 온 경우가 아니라면 본가에서 최대한 머물다가 결혼 등을 통해 갑자기 독립해버리는 식이 많다. 이번에 취재를 위해 만난 서울시 1인 가구 특별대책 TF 소속 간부마저 “우리 딸이 대학생인데 절대 자취는 안 시킬 겁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잖아요.”라고 말했다. 자녀 또래의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고심하는 그이지만 성인이 된 자신의 딸은 품에 두고 싶어했다.

청년 1인가구의 삶이 워낙 어려움

이 많기 때문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2030 세대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자산을 쌓아갈 기회를 앗아간다. 이는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 축적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청년들이 무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 상품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자산 증식의 길에서도 점점 더 소외되고 뒤처지고 고립된다.

최근 1인가구의 주거 대안으로 떠오른 셰어하우스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이와 맞닿아 있다.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의 빌라나 아파트를 나눠 쓰는 공유 주거인 셰어하우스는 일코노미(1인가구 경제) 시대의 주력 상품 중 하나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이는 또 다른 월세 상품일뿐 궁극적 대안이 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이 제공하는 상품에 의존해서는 청년 1인가구가 평생 월세살이를 면치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처음부터 번듯한 아파트를 살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든 하루빨리 작은 집이라도 사서 단계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낫다는 조언이다.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얘기다.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국 결론은 간단했다. 돈이 문제다. 청년 1인가구가 정부에 원하는 주거 정책 또한 ‘주거비 부담 완화’로 귀결됐다.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부동산 시장이 경

제성 논리로 무장한 채 2030 세대의 고향을 빨아먹고 있으니 이보다 급한 불은 없는 셈이다. 괜찮은 수준의 1인가구용 주거 상품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아무렇게나 지어도 방이 다 나가니 신경 써서 지을 이유가 없다”고 유현준 교수는 지적했다. 사람이 살 만한 넓이의 방도, 범죄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안전한 집도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누리기 힘든 상황이 된 이유다.

10여 년 전 상경해 첫 자취방을 옥탑방에 마련했던 시절을 다시 떠올려본다.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들은 정치권에 과연 얼마나 될까. 그들 중 평범한 청년의 주거 환경 실상을 몸소 겪어본 이들은 또 얼마나 될까. 입에 발린 ‘청년 타령’ 말고, 당사자성이라고 부족한 기득권 정치의 한계를 지금의 현실이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유권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시장이 달라지도록 하는 것은 ‘정치’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일이다. 안 그래도 무한 경쟁의 시대를 처절하게 살아내고 있는 청년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생존권에서만은 걱정하지 않고 사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한다. 살아남는 것조차 버거운데 미래를 위한 비전과 희망을 갖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